



사육환경개선을 위한 축사 관리요령



양승학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연구사

서론

매년 반복되는 축사환경관리이지만 올해는 다른 해와 의미가 남다르다하겠다. 축산업 전반에 닥친 차가운 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농가가 조금씩만 자신의 노하우를 습득 및 축적할 필요가 있다.

가축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사료와 첨가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축사환경관리가 중요한데, 모든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축사환경이라 하면 시설이나 장치만 떠오르는데, 포괄적으로 축사를 둘러싼 여러 구성요소, 즉 시스템을 칭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축사환경 관리와 관련하여 우리 농가가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것을 몇가지 골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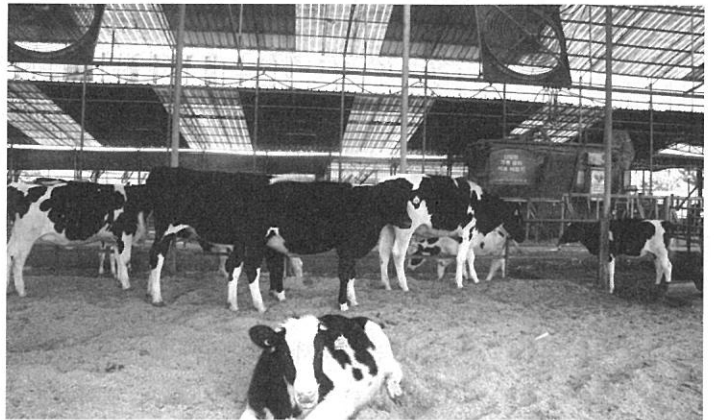
본론

1. 관찰 및 기록

가축이 쾌적하게 사육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건강상태를 항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어도 하루 1회는 실시해야 한다. 관찰 포인트로는 평소와 다른 행동, 상처 등 가축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면과 사료 및 물의 공급, 환기 및 조명 등 사육환경 등이 해당된다.

그러므로 평소에 사료섭취, 반추활동, 휴식상태를 관찰하여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이상징후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징후로는 설사, 식욕부진, 반추행동의 정지, 빠르고 불규칙한 호흡, 지속적인 기침과 천식, 떨림, 파행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 등의 전문가에게 신속히 문의하는 것이 좋다. 기

록항목으로는 개체별 번식이력과 건강상태, 질병·사고 발생유무, 사료교체시기, 사료섭취량, 물의 청결상태, 온도 등의 축사내부환경이 해당된다. 다년간 개체별로 상세히 기록을 해놓는다면 매번 입식시 이상주의 판별시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외부 또는 다른 우군의 밀소를 도입하고 우군을 편성한 경우는 가축에 있어 큰 스트레스시기이므로 주의깊게 관찰 및 기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유직후의 송아지와 외과적 처치를 막 한 소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해 둔다.

2. 최신정보의 습득

최근에는 인터넷이 생활 곳곳에 퍼져있어 조금만 노력한다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매년 5월초에는 해충 방제작업 등의 축사주변의 해충발생을 억제시켜야 하는 데, 인터넷을 활용하면 약제의 사용 및 주의사항과 기대효과를 미리 알 수 있으며, 축사상황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속하면 전염성 질병의 동향과 각종 영농정보 및 행사일정을 얻을 수 있어 연간 또는 월간 사양관리를 이 것에 맞춰갈 수 있다.

3. 사료와 물 관리

사료와 물은 사료통과 수조에 장기간 위치했을 때 곰팡이와 세균에 의한 오염이 발생되므로 정기적인 확인과 청결 유지가 필수적이다. 농후사료와 마찬가지로 사일리지도 변패되어 곰팡이 독소에 의한 중독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료의 저장상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수조 내의 물을 자주 흘려줘서 항상 깨끗한 물을 섭취도록 하도록 한다. 사료섭취량은 생산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모든 소들이 동시에 사료를 섭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 과도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 우군분리를 다시 하여 모든 소들이 평화롭게 사료를 섭취하도록 한다.



4. 체감온도와 환기

소에 있어서 쾌적한 온도영역은 사육단계와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최적온도는 10~20℃인데 체감온도는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 일사, 풍속, 환기방법, 사육밀도 등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소를 잘 관찰하고 쾌적한 환경의 유지에 힘써야 한다.

특히 육우는 더위에 약하므로 기온이 이상적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축사내부 온도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소에 있어 너무 더운 경우에는 호흡수의 증가, 식욕의 감퇴와 번식·비육성적의 저하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행동·현상이 관찰되는 경우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대형선풍기에 의한 송풍, 지붕으로의 살수, 미세연무 살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가능한 소의 체감온도의 저하에 노력하도록 한다.

우사 내부의 환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항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암모니아, 이산화탄소의 유해가스 및 먼지, 습기 등을 밖으로 배출하여 우사내부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우사 내부의 암모니아는 분뇨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발생량과 농도는 환기방식과 분뇨처리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특히 암모니아는 소의 호흡기점막의 생리적 배출기능을 방해하고 질병 저항성을 현저히 저하시켜 소의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5. 주변환경 및 시설관리

우사에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 소가 언제라도 사료 및 물의 섭취가 가능하도록 하며, 소의 상태를 쉽게 관찰 가능하도록 한다. 소는 소음에 약한 동물이므로 과도한 소음은 사료섭취량의 감소에 의한 생산성 저하와 갑작스러운 행동 유발에 의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소는 불안과 공포를 감지하여 휴식과 수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만성스트레스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사 내부장치의 작동에 의한 소음은 가능한 작게 하며 지속적인 소음과 순간적인 굉음은 피하도록 대처한다.

또한 사양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자동사료급여기 등의 자동화기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데,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소의 건강과 사육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1일 1회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가축의 생산효율성 증대 및 시설관리에 힘쓰도록 한다.

결론

지금까지 축산환경관리 중 몇 가지를 간추려 설명해 보았다. 여기서 언급한 내용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바쁜 축산경영을 하다보면 한두 가지는 까먹고 지낼 수 있으나 같은 것이 계속 까먹게 되면 아예 배제되는 경향이 있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축산을 묵묵히 이끌어 가는 농가분들께 본 필자는 적어도 위의 몇 가지 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

